

어덜덜덜 잘도간다	응아차 응아
얼덜덜덜 발도 맞추고	응아차 응아
얼덜덜덜 소리도 맞추세	응아차 응아
얼덜덜덜 우리마을 잡귀도 쫓고	응아차 응아
얼덜덜덜 풍년오네	응아차 응아차 응아

밤이 깊어가면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묻는다. 벌어진 디딜방아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 깨끗한 부인의 속곳을 입히고 등근 화상을 그려놓는다. 세워놓은 디딜방아를 돌면서 강강술래와 외줄을 메고 논다. 그 외줄을 디딜방아에 감아 모든 액살을 막도록 한다. 과부의 속곳을 입힌 디딜방아의 다리는 무서운 액막이가 되어 돌림병을 막고 액살을 퇴치하는 주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